‘6월은 산골영화제의 달’

무주군,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기념 각 마을서 산골마을극장 운영

무주군이 초여름 밤을 흥겹게 달굴 산골마을극장을 마련,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민을 위한 일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산골영화제 10주년을 기념하는 ‘6월은 산골영화제의 달’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내, 야외공간 중 특별한 공간을 선정했다.

이번 산골마을극장은 이벤트 상영 형태로 무주군민에게 특별한 영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무주산골영화제가 주관하며, 무주마을공체지원센터와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이 협력한다.

이번 무주산골마을극장은 ‘말임씨를 부탁해’, ‘이장’, ‘남매의 여름밤’을 3편이 각 마을을 찾아간다.

상영작 내용을 살펴보면 ‘말임씨를 부탁해’는 85세 대구의 꼬장 할매 정말임 여사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묻어두었던 관계의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내용으로 지역민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이장’은 아버지 묘 이장을 통한 흩어져 지낸 오남매가 오랜 만에 모여 가부장제와 작별을 고하는 이야기로 엮어져 영화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전망이다.

‘남매의 여름밤’은 방학동안 아빠와 함께 할어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남매 옥주와 동주,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 여름이 시작되고 한동안 못 만났던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기억에 남을 온 가족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2020년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 수상작.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옥 팀장은 “성공리에 마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을 찾아 마을회관과 학교 운동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가족애를 담은 산골마을극장을 마련했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영화 감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골마을극장은 14일 부남 대티 어린이축구장에서 ‘말임씨를 부탁해’ 상영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일 무주 앞섬체험센터에서 ‘이장’을 끝으로 영화 상영을 마무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말임씨를 부탁해’

‘이장’

‘남매의 여름밤’

고령자 주거복지 향상 ‘탄력’

장수군, 국토부 공모 선정… 장계·계남면에 80호 복지주택 공급

장수군이 2022년 장계·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80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6억 원을 확보했다.

13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장수 지역에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지난해 장수읍 고령자복지주택(100호)에 이어 추가로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맞춤형 주택으로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장수군 장계·계남면 지역에 80호의 고령자복지주택과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텃밭 등을 특화한 복지시설(1,200㎡)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 준공 목표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지역 내 고령화율(36%)이 도내 평균 고령화율(22.18%)의 1.6배에 달함에 따라 해당 시설이 고령자 주거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장수군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장수읍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120호)과 장계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40호), 장수읍 고령자복지주택(100호)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13일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가 강화되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다.

진안군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다. 이외 10개면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지만, 희망자는 지정병원에서 동물등록(내장칩)후 병원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진안군 2개 동물병원(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등록비 2만원(1마리)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본격 추진

무주읍 반딧불시장 일원에 복합생활문화 기반시설 조성

무주군이 주민생활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하는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무주읍의 반딧불시장 옆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여가, 방문객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될 이 사업은 94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생활문화 기반시설로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반딧불시장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들어선다.

주차장(복합주차타워 및 친환경 옥외주차장)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공공라운지 등)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무주군 지역주민과 시장 방문객의 쉼터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남대천 주변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과 부설주자창이 신축함으로써 편익시설과 주차공간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따른다.

특히 주차장 주변에 녹음수로 이팝나무를 식재해 그늘을 제공하고 시장과 남대천 주변 지역특성과 주변 경관에 부합되는 디자인과 조명시설로 설계가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접목된 ‘주민친화형’으로 조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청 건설과 도시개발팀 정창용 팀장은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며 “남대천과 시장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공법으로 설계돼 무주읍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태권도원 세계태권도그랑프리 챌린지 폐막

한국 금메달 4개 획득

세계 태권도 유망주들이 참가한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그랑프리 챌린지’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폐막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0일 태권도원에서 개막, 이날까지 열전을 펼쳤다.

한국은 여자 49kg급 이예지 선수와 남자 58kg급 박태준, 남자 80kg급 서건우, 남자 80KG 초과급 김민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폐막식은 K 팝 댄스 공연과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폐막사, 폐막 선언 순으로 진행되며 선수들과 심판, 대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그랑프리챌린지는 체급별 1, 2위 입상자에게는 2022 맨체스터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이 주어지는 등 유망주 선수들에게 등용문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일고와 진로캠프 운영

진안군은 13일 청소년의 자기 이해를 높이고 진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진로를 설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진안제일고 2학년 학생 39명이 참여했다.

군은 진로캠프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과 밀접한 5가지 동기인 ‘재미, 능력, 고통, 도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이를 확장해 개개인의 진로와 연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진로캠프는 청소년 교육 콘텐츠 전문 기획사인 ‘해본사람들’에 의뢰해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여름 행락철 앞두고 지방하천 정돈 추진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무주의 남대천 하천 등 지방하천이 깨끗하게 단장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하천의 풀베기를 통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방하천(남대천, 상곡천, 적상천) 구간 내 둔치, 산책로, 제방도로 및 하천친수공간 내 잡초제거와 풀깎기 작업을 실시한다.

남대천 무주읍 둔치 5.56㎞, 남대천(오산~장백) 20.4㎞, 상곡천(초리~하조) 8.5㎞, 적상천(가옥~대차) 9.6㎞, 소이나루원 20,340㎡ 등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풀깎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풀깎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수변경관 조성은 물론 지방하천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과 제방도로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천 환경 정비를 통해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하천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청결한 관광 무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